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그리고 교회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www.youtube.com/giyunsil

기윤실 유튜브 / 페이스북 생중계



기
신
교
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

김상덕 기윤실 상집위원, 연세대 강사

발제

김호기 연세대 교수

논찬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소 이사

홍문기 총신대 교수

조성실 시사평론가

문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명진 간사 cemk@hanmail.net

크리스찬아카데미 최고권 연구원 tagung@daemuna.or.kr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순서

사회: 김상덕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집위원

10:00-10:10 인사말

채수일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이의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이사장

10:10-10:40 회귀한 이념 논쟁 속 한국교회의 방향

김호기 교수

10:40-10:55 논찬 I [신학분야]

김진호 이사

10:55-11:10 논찬 II [역사분야]

홍문기 교수

11:10-11:25 논찬 III [사회분야]

조성실 평론가

11:25-11:55 논찬 답변 및 질의응답

11:55-12:00 기념촬영 및 마무리

회귀한 이념논쟁 속 한국교회의 방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목 차

- I. 이념과 이념구도
- II.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III. 한국 교회의 방향

이념과 이념구도

● 이념이란 무엇인가

- 이념은 한 개인 내지 집단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론적 문제들을 뜻함.
- 일반적으로 '좌파 대 우파'(유럽적 전통), '보수 대 진보'(미국적 전통)로 구분함.
-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를 독자적인 범주로 설정하기도 함.
- 이념은 근대(modernity)의 발명품임. 근대 자본주의, 근대 민주주의, 근대 시민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비서구사회의 경우에는 서구사회의 식민 지배에 맞서는 민족주의가 이념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함.

3

이념과 이념구도

● 서구사회 이념 구분의 기준

- 1) 자유 대 평등
- 2) 안정 대 변화
- 3) 시장 대 국가
- 4) 성장 대 분배
- 5) 공동체 대 개인

● 자유 대 평등의 특수성

- 보비오(Norberto Bobbio)에 따르면, 사회적 평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가능함.
- 좌파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하는 그룹이라면, 우파는 평등을 부정하지 않되 사회가 불가피하게 계층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그룹임. (Bobbio, 1996)
- 대체로 우파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함.

4

이념과 이념구도

● 세계화와 이념구도

- 1980년대 후반 이후 냉전체제의 해체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서구사회에서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는 의미를 점차 잃어 왔음. 21세기 이념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분 기준에 더하여 '민족주의(일국주의) 대 세계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새로운 구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표 1> 지구적 맥락의 이념·정치 균열

	일국주의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대처, 피노체트, 하이더)	초국적기업, 국제적 자유주의자 (후쿠야마)
재분배주의 (복지국가)	구좌파 (전통 사회민주주의)	글로벌 시민 네트워크 (NGO, 원조기구)

출처: Kaldor, 2000: 561

5

이념과 이념구도

● 세계화와 이념구도

- 1980년대 후반 이후 냉전체제의 해체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서구사회에서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는 의미를 점차 잃어 왔음. 21세기 이념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분 기준에 더하여 '민족주의(일국주의) 대 세계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새로운 구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표 1> 지구적 맥락의 이념·정치 균열

	일국주의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대처, 피노체트, 하이더)	초국적기업, 국제적 자유주의자 (후쿠야마)
재분배주의 (복지국가)	구좌파 (전통 사회민주주의)	글로벌 시민 네트워크 (NGO, 원조기구)

출처: Kaldor, 2000: 561

5

이념과 이념구도

● 서구의 이념구도와 한국의 이념구도: 상이성

1) 중도를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설정할 수 있음. 이는 한국 현대사에 내재된 특수한 조건에서 기인함. 1945년 광복 직후 보수와 진보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가 6.25전쟁 이후 진보가 사실상 불허됨으로써 진보 지향적인 일부 정치인들이 중도를 표방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2)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임. 보수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강압정책을 내세웠다면, 진보는 균형외교를 중시하고 포용정책을 앞세웠음. 더하여 이러한 차이가 이른바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북정책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더욱 예민한 쟁점을 이루어 왔음.

3)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임. 보수는 박정희 시대를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진보는 비판적으로 평가함.

7

이념과 이념구도

● <표 2> 한국사회의 이념구도

	보수주의	중도주의	진보주의
민족주의	민족주의적 보수주의 (발전국가론)	민족주의적 중도주의 (좌우합작론)	민족주의적 진보주의 (민족해방주의)
세계주의	세계주의적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세계주의적 중도주의 (제3의 길)	세계주의적 진보주의 (글로벌 좌파)

출처: 김호기, 2007: 214.

1) 민족주의적 보수주의는 '안보 보수', 세계주의적 보수주의는 '시장 보수'로 볼 수 있음. 국민의힘 계통의 정치 세력이 여기에 속함.

2) 더불어민주당 계통의 정치 세력은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주의적 중도주의에서 세계주의적 진보주의로 점점 이동해 왔음.

3) 정의당 계통의 정치세력은 민족주의적 진보주의에서 세계주의적 진보주의로 점점 이동해 왔음.

8

이념과 이념구도

● <표 3> 주요 이슈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대안

	보수	진보
대외관계	강압정책, 한미관계 중시	포용정책, 균형외교 중시
세계화	세계화의 적극적 수용	세계화의 선택적 수용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류 승인
경제모델	자유시장경제	조정시장경제
사회복지	선별복지	보편복지
노동	유연성 중시	안정성 중시
교육	경쟁력 중시	형평성 중시
균형발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출처: 박효종·김호기(2010)의 재구성

9

이념과 이념구도

1) <표 3>에서 볼 수 있듯, 보수 대 진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외관계와 경제모델에서 찾을 수 있음. 대외정책의 경우 보수가 강압 정책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한미관계를 중시한다면, 진보는 포용정책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균형외교를 중시함. 경제정책의 경우 보수가 '자유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를 강조한다면, 진보는 '조정시장 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를 강조함.

2) 여타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선별 복지(사회복지), 유연성(노동), 경쟁력(교육),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발전(분권) 등을 중시한다면, 진보는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류(민주주의), 보편복지(사회복지), 안정성(노동), 형평성(교육), 수도권 과 밀해소를 통한 균형발전(분권) 등을 중시함.

3) 이러한 구도는 21세기에 들어와 치러진 5번의 대통령선거(2002, 2007, 2012, 2017, 2022)에서 비교적 선명히 드러나 왔음.

10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이념논쟁의 소환

1)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이념논쟁을 소환.

-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 여기서 '공산전체주의'란 일차적으로 북한 체제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

11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2)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있는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겠다고 밝혔음.

- 2018년 3월1일, 3.1절 99주년을 맞아 육사 내 총무관 중앙현관 앞에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선생의 흉상이 세워졌음.

- 육사는 '독립군, 광복군 영웅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극복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내걸었음.

-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부인한 것은 곧바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12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3) 8월 28일,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다시 이념논쟁을 소환.

-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것이 이념이고,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주장.

4)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념논쟁을 다시 한번 더 소환.

-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5) 이렇듯 2023년 여름,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라는 이념논쟁과 마주하게 되었음.

13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한국 보수의 이념적 정체성

- 1) 자유민주주의의 배타적 옹호
- 2) 자유시장경제의 강고한 지지
- 3)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완강한 거부
- 4) 역사 논쟁
 - ① 식민지근대화론
 - ② '1948년 건국'과 이승만정부의 재평가
 - ③ 박정희정부의 재평가
- 5) 대외정책 논쟁
 - ① 대북정책: 강압정책
 - ② 외교정책: 한미동맹 중심

14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보수의 이념적 정체성과 현재의 이념 논쟁

- 1) 앞서 지적했듯, 한국 보수는 '시장 보수'와 '안보 보수'로 분화되어 왔음.
- 2) 윤석열정부는 경제정책 기조가 '시장 보수'인 이명박정부와의 연속성을 보여주어 왔음.
- 3) 최근 제기한 이념논쟁 기조는 '안보 보수'인 박근혜정부와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임.
- 4) 윤석열정부가 내건 '공산전체주의와의 투쟁'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안보 보수'의 핵심을 이루어온 주장임.
- 5) 윤석열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시장 보수와 안보 보수를 결합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임. 물론 이러한 결합은 온건보수가 아니라 강경보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임.

15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왜 이념 논쟁으로 회귀했는가

- 1) 개인 또는 집단의 신념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타적 옹호라는 한국 보수의 정체성의 표출.
- 2) 갈라치기 전략
 - '정치 양극화'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지지 세력의 결집 시도.
 - 온건 중도보수층보다는 강성 팬덤보수층에의 호응을 일차적으로 고려.
- 3) 신냉전질서의 정착
 -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냉전적 이념대결로의 복귀.

16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회귀한 이념논쟁에 대한 평가

1) 보수 내부의 평가

- 홍준표 대구시장: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 “그건 반역사다. 매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고 비판.

- 오세훈 서울시장: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장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위치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다 (...) 독립운동가로서의 일생을 사셨던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인 비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

17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2) 국민적 평가

- 여러 사안 가운데 홍범도장군 흉상 이전 문제는 회귀한 이념논쟁의 중핵을 이루었음.

- 뉴스토마토: 항일무장 투쟁가·독립투사를 이념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9%가 “동의하지 않는다”, 31.2%는 “동의한다”, 10.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음. (9월 6~7일 실시한 여론조사).

- KBS: 홍범도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7%, “동의한다”는 응답이 26.1%를 기록했음. (9월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18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이념논쟁으로부터의 후퇴

-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하자 윤석열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음.

- '이념보다 민생'을 부각시키고,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소통 및 협치'를 언급했음.

- 이념논쟁에서 후퇴한 이유는 이념논쟁에로의 회귀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있었음. 국민 다수는 회귀한 이념논쟁을 '철지난 색깔 논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이념논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그러나 열리는 총선 국면에서 재점화하거나 확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19

이념논쟁에로의 회귀

● 회귀한 이념논쟁이 남긴 의미

1) 21세기 이념과 이념구도에 대해서는 두 풍경이 존재함.

2) 한편에서는 지구적으로 '이념적 통섭'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수가 진보 정책을, 진보가 보수 정책을 차용하는 시대임.

3)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양극화의 구조화에 따라 이념갈등과 포퓰리즘이 강화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음. (Shin and Kim, 2022)

4) '정치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정치제도에 있음.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정치 양극화의 구조화는 예정된 결과임.

5)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과 정치문화 구축이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정치적 과제의 하나임.

20

한국 교회의 방향

● 이념갈등에서의 교회의 역할

1) 이념갈등은 이익갈등(노사갈등 등)과 가치관갈등(환경갈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복합갈등임.

2) 이념갈등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음. 사회갈등이 다원주의 사회의 증거라는 점에 주목해 이념갈등의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불을 감소시키되 그 생산적 에너지를 새로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3) 한국 이념갈등의 완화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 ① 생산적 정책토론의 강화
- ② 관용과 불관용의 경계 숙고
- ③ '이중적 잣대'의 거부
- ④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당 역할 제고

21

한국 교회의 방향

- ⑤ 성숙한 공론장의 구축
- ⑥ 정부의 중립적 태도 유지
- ⑦ 근본주의 시민문화의 극복

4) 무릇 종교는 어느 사회든 정신적 가치의 구심임. 어떤 이념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진리와 정의'를 선행할 수 없음. 교회는 기독교적 진리와 정의에 기반하여 이념논쟁에 접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더하여 이념논쟁을 철 지난 색깔논쟁을 넘어 다원적 미래 경쟁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포용과 통합'이라는 기독교의 정신을 발휘한 필요가 있음.

6) 진리와 정리, 포용과 통합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공존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국 교회는 질문을 던지고 답안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22

주요 참고문헌

- Bobbio, Norberto(1996). *Left and Righ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제3의 길은 가능한가>. 박순열 옮김. 새물결.
- Kaldor, Mary(2000). "Global Civil Society." in David Held and Anthony McGrew eds.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Cambridge: Polity.
- Gi-Wook Shin and Ho-Ki Kim eds(2022).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 Threats of Illiberalism, Populism, and Polarizatio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ersity.
- 김호기(2007).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
- 박효종·김호기(2010). "보수와 진보 사이의 생산적 소통을 위하여." 보수·진보 맞짱 대토론회. 사회통합위원회 외.

23

감사합니다

24

저기에 ‘변방성’이 꿈틀대는 신자들이 있다

김호기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논평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

회귀! 퇴행?

발제자는 윤석렬 정부가 한국사회를 ‘이념 논쟁으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회귀’라는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발표에서 엿보이는 발제자의 생각은 ‘회귀’보다는 ‘퇴행’에 가까워 보인다. 윤정부의 이념적 행보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제기한 몇몇 비평가들과 저널리스트들의 표현은 좀더 상투적이면서도 명료하다. ‘철 지난’ 혹은 ‘때 아닌’ 같은 어구가 대표적이다.

비판적이라는 점에서는 나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발제자에 대한 비평의 자리이니 조금 트집을 잡아보면, 이와 거의 같은 표현의 문제제기가 천안함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가 강경한 반공이념으로 정국을 휘몰아칠 때도 있었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경한 이념 정치를 펼 때도 있었다.

2007년과 2010년에 실시된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들 두고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의식이 고조되던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이념적 갈등이 크게 강화되었다.¹⁾ 발제자가 ‘시장 보수’ 정권으로 규정했던 이명박 정부는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념 갈등을 정치에 본격 활용했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는 ‘시장 보수’ 정권이라는 평가가 일면 타당하지만, 중반기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이념 논쟁을 부추김으로써 정권의 내적 자생성을 강화시키려 했던 ‘안보 보수’ 정부의 성격이 명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겹치지만,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이념 논쟁을 주도한 이들은 이른바 ‘뉴라이트’임을 자임했던 자들인 반면 후자는 ‘올드라이트’ 정권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 점에서 ‘철 지난’, ‘때 아닌’ 같은 주장들은 그 비판 기조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그 이념 행보를 시대착오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분석 여지를 별로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퇴행’이라고 번역했던 나의 억측이 개연성이 있다면, 발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제자는 ‘귀환’의 국내외정치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으니, 나의 평가가 억측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21세기 이후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정치 양극화의 쓰나미 현상이 한국에도 휘몰아치면서 포퓰리즘 정치가 만연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념 갈등이 횡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포스트세계화 시대의 대안정치 현상의 하나로 세계를 휘젓고 있는 신냉전화 현상을 지적한다.

발제자가 사회학자로서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점은 여기까지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이념 갈등 심화 현상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문제는 신학자들의 과제일 것이다.

개신교 극우의 부활과 분화

최근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과 교회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묻기 위해서는 2003년으로 거슬

1)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지형과 변화》(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참조.

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한 보수정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던 때다. 그런 절망의 분위기를 역전시킨 것이 2003년 3.1구국기도회다. 김진홍 등이 주도했던 이 집회에는 무려 10만 명(경찰추산. 주최측 추산은 20만 명)이 모였다. 중요한 것은 이 집회 이후 개신교의 극우주의적 정치세력화가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개신교가 주도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독교(반공)국가’ 담론이 한기총을 중심으로 개신교를 거대한 정치연합으로 변모시키는 계기인 것이다. 이와 함께 한기총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²⁾

하지만 동시에 이는 개신교 반공주의 세력이 분화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2005년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개신교의 또 다른 정치세력화가 모색되었다. 한기총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뉴라이트를 표방한 개신교 세력은 개신교계 시민운동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좀더 사회운동에 익숙한 세력이다. 해서 전자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좀더 권위주의적인 개신교국가 담론에 더 친화적이라면, 후자는 민주화 시대 개신교 반공적 보수주의 양상이 보다 강하다.

한편 2007년 이후, 온라인 공간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개신교 ‘넷우익’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³⁾ 일부 단체들은 오프라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주요 활동공간이 온라인이라는 점, 그리고 청년 개신교 신자들이 이 네트워크의 핵심 유저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대체로 뉴라이트 극우주의 성향을 띤다는 점이 주목된다.

극우개신교 부활의 이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한기총의 시대를 이끌어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과연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이들인가? 그들은 성공한 목사들이었지만 시민사회나 교계의 폭넓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기총이 급부상하던 시절, 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적폐로 지탄받는 대표적 세력이었고 그런 과녁은 대체로 한기총의 주역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한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교회를 향하 비판이 1990년대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무렵 새롭게 부상하는 교회들이 적잖았다는 점이다. 나는 이 교회들을, 선발대형교회와 대비하여, 후발대형교회라고 명명한 바 있다. 전자는 1970~80년대에 주로 전국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났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급성장하였다. 후자는 1990년대 이후 주로 강남과 분당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한 중상위층이 대거 유입해들어옴으로써 대형교회가 되었다. 또 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장지상주의에 가깝다면, 후자는 풍요의 품격을 강조하면서 성장을 이룩한 교회들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 후발대형교회에서는 담임목사직의 교회 세습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2천년대 급부상한 교회들 중에는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극도로 강조하거나, 이웃에 대한 나눔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그런 교회들을 이상적 교회로 모델링하는 경향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후발대형교회들에는 한국사회의 파워엘리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파워엘리트는 일터라는 사회적 전쟁터에서 가장 성공한 전사들이다. 또 그들은 자녀들에 대한 과열된 교육 욕망을 주저 없이 분출하는 주역이었다. 한데 놀랍게도 그들이 교회를 따뜻한, 포용적인 보수의 신앙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담임목사는 그런 욕망을 가진 이들을 대거 흡수하기 위해 교회를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들이 후발대형교회 현상을 주도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담임목사직 세습이라는 폐습을 거둬내는 교회를 만들었지만,

2) 한기총은 1989년 창립되었는데, 한국개신교를 사실상 주도하는 교회연합기구로 부상한 때는 2223년 이후다. 그리고 전광환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2019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급격히 위세가 추락했다.

3) 2007년 이후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거대넷(거룩한 대한민국네트워크), 십알단(십자군알바단) 등 무수한 개신교 온라인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졌다.

정착 그 교회의 파워엘리트들은 사회에서 누리는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장으로 교회를 구축했다. 수천, 수만 명의 중상위층의 사람들이 수십년 혹은 대를 이어서 매주 1회 이상의 공식·비공식의 모임을 갖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한국의 후발대형교회다. 해서 이런 유형의 교회는 거대한 인맥공장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20%도 안 되는 개신교 신자들이 파워엘리트의 40%를 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교회의 파워엘리트들이 집중된 곳은 전체 교회의 1% 정도에 불과한 후발대형교회였다.

그 반대편에는 실패한 많은 중소형교회들이 있다. 또 규모에선 대형이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형교회들은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해서 실패한 혹은 열패 의식에 사로잡힌 교회들은 열렬히 후발대형교회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개는 실패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위기가 감돌던 시기에 열패감에 시달리던 선발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축이 된 한기총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 교회운동은 사회적 신망도를 높이지는 못했지만,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데는 성공했다. 여기에 극우주의가 한몫했음은 의심의 여지 없다.

중소형의 많은 교회들이 한기총 운동에 편승했다. 전광훈이라는 대단한 활동가는 1990년대에 이들 중소형교회 목사들을 하위단위에서 조직해내는 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실패 감정은 그들을 극우주의적으로 정치세력화되는 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이 후발대형교회의 주역들, 담임목사와 평신도 엘리트들은 이런 실패(예감)자들의 극우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마도 발제자는 이들을 이념적으로 세계주의적 보수나 중도 범주로 해석하는 것 같다. 한데 나는 이런 규정보다는 문화계급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웰빙보수주의적으로 주체화된 신자와 교회로 설명한 바 있다.⁴⁾ 문제는 그들의 웰빙이 사회를 더욱 양극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데 있다. 그들의 계층편향적인 웰빙신앙은 열패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증오의 정치에 과몰입된 신앙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극우개신교, 부활의 이유

후발대형교회가 급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는 세계화의 작혹극에 한국사회가 난도질 당하던 시기와 겹친다. 또 그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세계화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중위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와의 겹친다. 그 시기에 한국사회를 지배한 담론의 하나가 ‘자기계발담론’이다. 후발대형교회는 기독교적 자기계발담론의 진원지였다. 좀더 성공한, 혹은 성공 가능성에 열려 있는 청년들은 후발대형교회로 이동했다. 그리고 실패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같은 시기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 신자가 되었다. 한데 그들 중 상당수는 가족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배제와 박탈을 체험한 이들이었다. 자기계발 신앙에 몰두하던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 목록에서 실패와 좌절, 절망이 사라져 간 탓에 그들은 교회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신천지는 바로 이런 이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소박한 성공의 성취감을 선사했다. 문제는 신천지에 빠져들수록 그들의 반사회성이 더욱 강화되어 간다는 데 있다.

한편 제3의 길이 있었다. 교회 어른들이 전방(일터와 가족)의 치열함과 대비되는 평화로운 후방공간을 교회에서 구현한 것처럼, 일부 청년들은 가족과 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치열한 전사로 살면서, 미친 듯이 놀아대는 후방지대로서 클럽을 찾았다.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향락의 공간이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 속에 가상의 클럽이 만들어졌다. 그곳에는 자기계발 신앙에 따라 끝없이 성공을 향해 질주하도록 셋팅된 현실의 공간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계산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수(imaginary numbers)가 활약하는 새로운 수의 세계가 있었다. 실

4) 김진호, 《대형교회와 웰빙보수주의》(오월의봄, 2019)

수(real numbers)들만의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문화비평가 박원일의 표현대로, ‘인터넷의 막장성’을 향유했다. 그곳이 규범의 바깥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일베는 그런 막장성이 구현되던 대표적 장소다. 그곳에선 ‘혐오’가 막장 놀이의 수단으로 부상했다. 이때 혐오의 대상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던 불링(bullying) 현상과 유사하다. 약하고 만만한 상대가 표적이 되었다. 한국판 넷우익의 한 축은 이렇게 혹독한 경쟁사회에서 형성된 과잉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막장의 놀이공간을 혐오주의적으로 향유한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에게서 이념은 놀이의 일부였다.

이런 넷우익의 놀이성을 신앙적 소명과 결합시킨 신박한 개신교 청년들의 온라인 네트워크들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것은 한국판 넷우익의 다른 축이다. 그들은 이념을, 놀이의 수단으로 향유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국가를 만들어가는 소명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극우담론의 표적이 된 이른바 ‘적그리스도들’과 전쟁을 벌였다. 한데 이들의 주요 전쟁터는 온라인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개신교판 ‘네트워크 전사’(network army)⁵⁾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극우개신교 현상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 친화적 우파들이 만들어 낸 후발대형교회가 일으킨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효과의 부정적 파생물 성격이 짙다. 말했듯이 후발대형교회는 한국사회 파워엘리트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에서 가장 강력한 클러스터(cluster)의 하나다. 해서 그 현상이 미치는 사회적, 종교적 파급력은 막강하다. 최근의 개신교 극우주의 양상은, 후발대형교회 현상의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종교적 리스크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라고

한국개신교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개신교 극우파의 언행에 조준되어 있다. 그런 시선은 개신교 선교의 위기를 초래했다. 또한 가장 평판 나쁜 종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시선은 개신교 신자들의 자기거울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자들의 종교제도적 충성심 이완으로 나타났다. 코로나팬데믹 현상은 이런 충성심 이완 현상을 극적으로 강화시켰다. 많은 교회들은, 외적인 확장언어, 출석교인의 심각한 이탈에 시달리고 있다. 극우성향의 개신교 정당들이 공약으로 교회 대출 금리의 파격적 인하를 주장했던 것에서 시사되듯 많은 교회들은 이미 심각한 부채 상황에 고통받고 있었다. 교회의 신용도가 낮은 탓에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꺼리고 있고, 이자율이 좀더 높은 제2, 제3 금융권이 교회 대출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교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한데 사회적 평판이 급락히 악화되고 코로나팬데믹으로 신자의 충성도가 견잡을 수 없이 이완된 것이다. 이제 많은 교회들은 존립 자체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 신자 감소의 위기를 덜 혹은 전혀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특히 후발대형교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지대에 진입해 있다. 더욱 문제는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이나 교회연합체들이 성공하는 후발대형교회들의 성공비법을 모방하고 평가하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개신교의 극우화는 개신교의 퇴행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를 퇴행화시키는 주요 원인자이기도 하다. 발제자는 진리와 정의, 포용과 통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개신교가 해주길 바란다

5) ‘네트워크 전사’는 군사안보 전문가인 리처드 헌터(Richard Hunter)의 용어다. 이에 대하여는 박권일, <한국의 온라인 극단주의(Online Extremism)>, KISO Journal 18호(2015. 03. 28) [<https://journal.kiso.or.kr/?p=5950>] / Thomas Brannon, “The Arrival of Network Armies: Public Policy and Global Marketing Considerations” p. 7 [<https://indianstrategicknowledgeonline.com/web/2015-Network-Armies-Tom-Brannon.pdf>] 참조.

고 당부하고 있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또 그런 주류 교회들의 양상에서 배제된 교회들과 신자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주의를 부추기면서 성공한 교회들에 대한 열패감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한국교회의 아프고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러니 어찌란 말인가. 그것에 반대하는 교회나 기관, 그리고 신자들의 규모는 턱없이 적다.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 그렇다.

한데 다른 점이 있다. 한국개신교가 전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신앙심과 동일시해왔던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이탈하게 했다. 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이었던 것들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교간 경계를 넘나들곤 한다. 또한 종교 바깥에서도 진리를 향한 탐구에도 귀를 기울인다. 심지어 인간세계 바깥의 소리에도 감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은 ‘떠돌이 신자들’ 사이에서 변방성이 신앙의 요소로 자리잡으려 꿈틀대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신앙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의 하나는 ‘영’의 발견이다. 몸의 굴레를 벗은 존재는 몸의 제도가 만들어낸 어떠한 장벽에도 구애받지 않는 존재인 영을 체험했다. 요한복음은 그런 영을 ‘바람’으로 묘사했다. 변방성은 바람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어떤 규격의 상자에도 가뉘들 수 없는 영이 장벽으로 가득했던 신앙의 언어를 리셋팅하기 시작했다. 그런 변방성으로 자신을 해석하기 시작한 떠돌이 신자들이 광범위하게 한국개신교의 경계 지대, 아니 변방지대에 나타났다.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교단의 경계, 교회의 경계, 종교의 경계, 이념의 경계, 민족과 인종의 경계, 섹슈얼리티의 경계, 온갖 경계의 족쇄들을 하나씩 몸에서 벗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의 변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대열에 이미 서 있다. 단지 교회 안만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못 보았을 뿐이다.

이러한 변방성의 강화를 극적으로 체험하는 이들이 대대적으로 출현하는 일은 다른 어느 곳보다 교회의 변방지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교회가 가장 적폐가 심한 곳으로 낙인찍힌 덕에 많은 이들이 떠돌이 신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런 이들과의 소통법이다. 어떻게 변방성을 신학적 서사로 만들어 낼 것인지, 특히 그런 변방성의 신앙을 혐오사회로 추락하고 있는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정치신학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신학이 필요하다. 바로 이 과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

2023년 현재 한국 정부는, 한때 유행했던 탈이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적 양극화를 조장하여 정권을 연장·재창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는 이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며 또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현상도 아니다. 이 지구적인 회귀가 어디로 귀결될 것인지 또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소위 세계적인 뉴-노멀로 자리잡은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회귀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과거를 부당하게 전유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독점하려는 행위다. 따라서 과거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역사 연구자로서 이 시대를 당해 해야 할 일은, 그 전유의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시간의 간격을 다시 확인하고 공동체를 합당한 토론의 장으로 되돌리는 작업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이번 정권의 홍범도 이슈화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는 한편, 한국 역사학과 민족주의의 관계라는 ‘오래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본래 논찬이어야 했을 이 글이 지정토론으로 바뀌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내용에 더욱 큰 구멍이 드러나게 되었다. 필자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논할 만한 지식이 없으며 기독교회의 갈 바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모쪼록 많은 선후학들과 신우들의 질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회와 교회에 대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제언 한 가닥이나마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 홍범도, 그 부당한 전유의 역사

2023년 초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기업이 돈을 각출하여 배상한다는 조치가 강행되자, 3월 15일 역사관련 53개 학회 및 단체가 공동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21세기 들어 역사학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국정교과서 반대 정국 때에도 28개 학회만 참여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숫자였다. 역사 연구자가 된 이래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부를 본 적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구자들을 만날 때마다 ‘살다 살다 이런 정부는 처음 봤다’ 라는 말을 무슨 인사처럼 주고 받았다. 역사 속에서도 참 흔치 않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략 6개월 뒤인 9월 13일, 다시 51개의 역사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홍범도 흉상 철거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한 해였다.

이 정권이 왜 홍범도를 문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유해 봉환식은 한국 사회에 큰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정부는 봉오동 전투의 지휘관으로 알려졌다기에 관습적으로 ‘장군’으로 불렸던 홍범도의 흉상을 육사 교정 안에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 군대의 기원이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군의 기원,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두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진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진보측이 거둔 큰 승리였다. 이것이 군 상층부와 반공보수세력의 위기감을 자극했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Anything But Moon’ 입장이 더해져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굳이 홍범도의 홍상을 철거하기 위해 제시한 명분이 매우 박약하다는 것은 이미 언론계와 학계에서 여러번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을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그의 1919~1922년간 ‘빨치산’ 경력을 6.25 전후의 빨치산과 동일시해버린다면, 1923~1943년간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냉전·분단체제 하의 ‘공산주의자’의 그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홍범도에 관한 기억에 대한 부당한 전유를 넘어 매우 수준낮은 왜곡이다. 역사학계에서는 논쟁조차 되지 못하는 사안일뿐더러 대중적으로도 국민의 63.7%가 홍상 이전을 반대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무리수가 일어난 이유는, 상술한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 서사를 두고 벌어진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었으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밀리고 있다는 반공보수세력의 초조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유는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홍범도가 유명을 달리한 후 80년이 지나는데 동안 우리나라는 그 이전의 800년을 능가하는 변화를 겪어왔다. 그 사이 한반도는 이념과 전쟁으로 두 동강 났으며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우던 역사의 절반은 주홍색으로 덧칠되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분단 이전의 시간을 겪지 못한 지금, 우리는 과연 홍범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기에 그의 유해를 굳이 이 땅으로 불러왔을까. 최인훈의 유명한 《광장》이라는 소설에는 분단된 어디로도 갈 수 없기에 제3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히 소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광복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조선인 중 일부는 분단 현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도 대한민국 국적도 선택하지 않고 사실상 무국적인 ‘조선적’ 신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홍범도는 반생 이상을 이국에서 보내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그 가족들도 민족을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목숨을 희생했다. 소련 입국 신고서에 직업을 ‘의병’, 목적과 희망을 ‘고려(한국) 독립’이라고 쓸 정도로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런 사람이 과연 분단된 한반도의 한쪽 편인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6.25전쟁 때 동족상잔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 국군의(물론 북한의 인민군도 마찬가지다) 기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을까.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더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홍범도를 폄하하려는 시도가 이념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초조함의 발로라면, 홍범도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이념구도를 선악이분법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당연히 선이라고 자신하는 오만함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의 유해를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봉환함으로써 남북한 간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으로 존송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이념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것 또한 홍범도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 못지 않게 그에 대한 기억을 폭력적으로 전유하는 것일 수 있음을 성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는 ‘지금 이 곳’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회에 건설적인 토론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민족주의를 넘어선 역사학은 가능한가?

발제문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21세기 이념구도에는, 전통적인 보수 Vs 진보의 갈등을 넘어 민족주의(일국주의) Vs 세계주의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트럼프주의의 부상, 브렉시트의 발생, 국민전선의 선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주의의 원천이었던 서구 1세계가 민족주의에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애초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민족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한국 민족주의의 정서적 동력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된 경험(반일민족주의), 그리고 북한과의 체제경쟁경험(반공민족주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었다. 이중 전자는 일본군 강

제동원 위안부 및 강제징용 노동자 등 일본의 식민지 범죄, 그리고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갈등이 지금도 첨예하다. 여전히 그 피해자가 생존해계시기에 한국 사회에 강력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이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이 ‘대결’에서 승리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사회의 유사한 문제들(ex. 한국군 위안부, 미군기지 위안부, 기타 독재정권기 강제노동력 동원 및 학살 문제 등)이 공론화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서사가, 민족 구성원 중 일부를 희생 혹은 배제시킴으로써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

후자는 자유주의 VS 사회주의(=전체주의)라는 구도로 확대되어 오늘날 반복보다 반중민족주의로 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최근에는 한복, 김치 등 한국의 문화 일반에 대한 소위 ‘문화공정’이 대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청년 세대의 반중정서는 유례 없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대중역사학 및 역사공교육이 이러한 반중정서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결과, 한국 민족주의는 중국과 조선족에 대한 비판적(나아가 혐오적) 역사 서사로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소수민족은 다 중국민족의 일원이고 그들의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라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철저히 정치적, 비학문적이며 무엇보다도 폭력적이다. 그러나 ‘고조선은 중국‘만’의 역사다’라는 그들의 억지에 반박하기 위해 ‘고조선은 한국‘만’의 역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모두 다민족 국가였으며 그 구성민족들이 한반도의 역사로 오롯이 계승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고조선·고구려·발해의 후예인 지금 만주 및 연해주 일대에서 살고 있는 북방계 소수민족들은 스스로를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한국 사회 또한(고대사 중심의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그들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동북공정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의 반중민족주의는, 상대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함께 역사왜곡을 남발하고 있는 형국에 가깝다. 그 결과, 중국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라남도 최대의 장고형 고분이 ‘임나일본부의 근거가 될까봐’ 발굴도 되지 못하고 도로 덮여버린 웃지 못할 일마저 일어났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민족주의는 정확하고 풍부한 역사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중정서를 증폭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안의 합리적인 토론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세기 중반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경향의 역사학들이 대두되어온 바 있다. 지구 규모의 거시적 역사에 주목하여 민족주의를 포함한 인간 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아날학과 역사, 반대로 사회 하층민의 역사에 주목한 미시사 및 신문화사,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이민사·젠더사·소수자역사,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생태환경사 등이 국가사 혹은 민족사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20세기 말 21세기 초 1세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세계시민주의’가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빠르게 그 힘을 잃어갔듯이, 오늘날 국가주의·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은 대중문화와 공교육 속에서는 도리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인류공멸의 위기감에 기댄 생태환경사 외에는 ‘대안적 역사학’은 1세계에서조차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역사학은 무엇일까. 아니 오늘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프라센짓 두아라(Prasenjit Duara)가 2004년 한국 민족주의에 관해 제시한 제언을 다시 기억해보고자 한다. 그는 미국의 중국사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이며 동아시아 연구자 중 일찍부터 반민족주의적인 태도를 명확히 했던 사람이지만, 2004년 한국에서의 학술발표 때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세계체제에서 민족주의는 유용한 생존전략이지만, 내·외부의 적을 향한 독을 품고 있

다. 그럼에도 만약 한국인들이 성찰적 민족주의(reflective nationalism)를 갖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족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면, 성찰적 민족주의는 매우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 한국의 대중적 민족주의는 통일과 사회적 평등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나름의 의제를 갖고 있고, 이는 보수적 민족주의와는 대단히 다르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대중적 민족주의가 언젠가 국가 민족주의와 만나게 될 날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서라도, 대중적 민족주의가 성찰적일 필요가 있다. ... 만약 우리가 연대(solidarity)를 제도화한 민족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이를 현실에 구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민주화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런 민족적 연대(national solidarity)는 내부 뿐만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야 한다.”(『한겨레』 2004. 12. 9. 「미국의 탈민족주의자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옹호하다」)

물론 지금은 두아라의 저 발언이 있는지 19년이 지난 시점이며, 한국 민족주의의 순기능이 2004년 당시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성찰적 민족주의’는 사실상 세계사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귀결된 듯도 하다. 하지만 분단 현실 속에서 한국 민족주의가 다른 1, 2, 3세계의 민족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발전해왔다는 두아라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국제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어느 때보다 사회의 건설적 통합이 절실한 지금, 우리는 민족주의 외에 사회 통합을 위한 정서적 동력을 얻을 마땅한 원천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성과 연대를 통해 성찰적 민족주의를 구축해낼 수 있는 역사 서술을 지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이념 토론이 가능한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위한 역사학의 소명이 아닐까... 라는 식상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본다.

초등학생 때로 기억한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티비를 보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연세대를 점거했다는 뉴스와 함께 진압을 위해 출동한 헬기가 화면에 잡혔다. 부자연스럽게 티비 전원을 끄려던 엄마와 그걸 말리려는 아빠 간에 말다툼이 시작됐다. 저런 뉴스를 구태여 보여 주지 않아도 대학에 가면 운동권이 될 것 같아 걱정이라던 엄마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다방면으로 듣고 배워야 자기 삶을 책임지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던 아빠 사이에 긴장감이 강렬했던지 이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유년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 때가 1996년의 어느 하루였다. 사실은 그로부터 십여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엄마의 걱정과 달리 대학에 입학한 2005년 대학 캠퍼스 내에서 운동권 선배들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었고 학생회나 동아리 몇 곳에 관련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1. 바야흐로 ‘05학번이즈백’

우리는 지금 그 05학번이 추억 소환 콘텐츠물의 상징으로 소비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유튜브 내 새로운 코미디 무대를 개척해 낸 성과로 백상예술대상 예능작품상을 수상한 <피식대학> 채널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는 ‘05학번이즈백’이다. 다시 말해 1세대 SNS의 상징이었던 싸이월드 감성이 복고의 기준이 되는 시대란 이야기다.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에 나고 자란 이들에게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한 이념 논쟁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회귀한 이념 논쟁의 핵심 이슈였던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특집 여론조사⁶⁾에 따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대비 최소 20%p이상 높았다. 그 중에서도 30-40대는 흉상 이전에 대한 동의가 약 18-19%대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는 73-74%에 달했다. 20대의 경우 ‘모름/무응답’ 비중이 15.7%로 16.0%를 보인 70세 이상층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결과 뿐 아니라 그 후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도 이를 방증한다. 발제자의 분석처럼 적어도 다음 총선 국면에서 이념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표 2]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의견

[문10]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과는 별개로 소련 공산당 이력 등을 고려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값 적용 사례수(명)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T2 (①+②)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B2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1,000)	(1000)	10.8	15.3	26.1	22.0	41.7	63.7	10.2	100.0
성별	남자	(514)	(495)	11.3	14.5	25.7	20.3	48.4	68.7	5.6	100.0
	여자	(486)	(505)	10.3	16.2	26.5	23.7	35.2	58.8	14.7	100.0
연령	18-29세	(160)	(163)	3.6	16.6	20.2	27.2	37.0	64.1	15.7	100.0
	30-39세	(145)	(150)	7.5	11.4	18.8	21.5	52.1	73.6	7.6	100.0
	40-49세	(181)	(180)	5.2	13.4	18.6	22.5	51.3	73.8	7.7	100.0
	50-59세	(198)	(195)	13.8	11.2	25.1	22.3	47.0	69.3	5.7	100.0
	60-69세	(178)	(171)	16.0	18.2	34.2	19.2	36.3	55.5	10.3	100.0
	70세이상	(138)	(141)	19.1	22.9	41.9	18.9	23.2	42.0	16.0	100.0

6) <https://news.kbs.co.kr/datafile/2023/09/29/308261695869841851.pdf> 테이블 캡처 인용

2. 역할과 쓸모

그럼에도 국제 안보 환경과 분단 국가로서의 숙명을 공히 고려할 때 이념 논쟁으로의 회귀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는 또 다르게 현재적인 안보 위협과 이에 관한 대응 카드는 언제나 정치 이슈를 삼키는 최우선 화두가 될 수 있다. 물론 세대별 차이와 경향성이 뚜렷했던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여론이 전개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개신교회의 역할과 쓸모는 무엇일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개신교인에게 사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주 무대이자 파송 받은 선교지에 해당한다. 이는 자연스레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사회 그 중에서도 정치권 입장에서 바라 볼 때 개신교회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그 쓸모는 어느 정도일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각 종교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현대사의 주요 정치인들은 종교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주요 여론을 수렴해왔고 국가적 위기와 갈등이 초래될 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여론과 지혜를 경청하는 방식의 정치 행위를 이어왔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계의 영향력이 단연 돋보였는데 그 기저에는 계속된 교세 확장과 수적 우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종교적 영향력에 기반한 사회적 권위와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교세를 바탕으로 교계의 존재감이 확대되어 왔고 그 영향력은 단연 매 선거 시즌마다 정점에 달했다. 다수의 중대형 교회들이 소문의 허브이자, 군중의 집결지이며, 정치적 열정을 가진 이들의 거점으로서 역할 해 왔다. 어느 때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주요 정치인들을 견인했고, 그렇지 않을 때엔 극우 포지셔닝을 도맡아줌으로써 전통적 보수 정당의 온건적 이미지를 이끄는 반사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쓸모였다.

그런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가나안 성도의 출현, 청년층의 이탈, 비종교화 흐름과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교회의 위기는 교세의 축소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정치권과 교회의 관계 재설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야 교계의 전통적 영향 아래 존재하는 성도들의 활동력이 유효한 상황이지만 이들을 세대교체 해 줄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교회의 쓸모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 본질과 파장

개신교계의 위기는 비단 교세의 어떠한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다. 그간 개신교회가 앞장서 선구적 역할을 해 온 대다수의 분야(교육과 문화사역, 자선과 구제 및 사회복지 사업, 각종 시민운동 등에 이르기까지)가 정부의 사회복지 확장 정책과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분화되어왔고 역설적으로 사역적 관점에서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었다. 일상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던 매개들이 줄어들며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좁아져 온 게 사실이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카페, 방과후 교실, 마을 도서관 등의 역할을 자처해 온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방면의 사회 사업을 감당했던 지난 시절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떤 존재로서 역할 해야 하는 것일까? 개혁적 역할을 자처 해 온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세속적 가치와 자본에 취약한 교계의 단면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념 논쟁이 재점화되거나 국제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돼 신냉전 분위기가 초래된다면 과연 우리는 개신교회의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파장을 미칠 수 있을까.

파장이란 울림이 있어야 가능한 법이다.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러했듯,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고민과 이들을 압도하는 시대정신, 나아가 집단적 사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짚어 하나님나라가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 소망에 관해 말할 때 비로소 반향과 파장이 가능하다.

4. 이념의 가장[假裝]

그런 점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가장(假裝)된 이념’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통상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안보 보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분명한 편이다.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고 이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이 연달아 흥행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왔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이념들, 가히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몇몇 이념들에 대해서는 주요한 이슈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신자유주의 및 능력지상주의, 페미니즘 등의 이슈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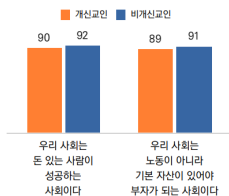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의뢰하고 (주)지앤컴리서치가 수행한 ‘2022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인식 조사’⁷⁾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돈에 대한 견해는 비개신교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와 지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다’의 형태로 진행된 현실 인식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명 중 2명 이상으로 ‘이를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개신교인 46%, 비개신교인 48%)와 불평등한 정치·사회 구조(개신교인 33%, 비개신교인 31%)’라고 대동소이하게 답변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인식]

개신교인의 돈에 대한 견해, 비개신교인과 큰 차이 없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사회이다’에 대한 의견 모두 응답자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동의했으며,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돈 관련 주제에 대한 동의율* (매우+약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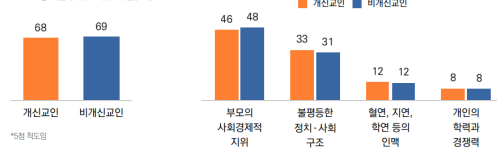


*5명 척도임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신분제 초래

- 사람들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하든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 이상이 동의했고, 이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이 비슷했다.
- 새로운 신분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개신교인 46%, 비개신교인 4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불평등한 정치·사회 구조’,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의 순이었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 개인 노력이나 학력 등의 스펙보다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현대판 신분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오늘의 한국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라는 의견에 동의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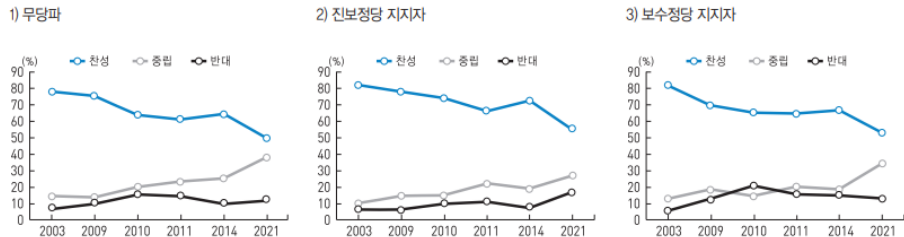


*5명 척도임

7) 2022.11.15.-11.24(10일간), 전국 만19세이상 개신교/비개신교인 남녀 총 1000명, 온라인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발간 <넘버즈 184호> 자료 및 차트 캡처 인용(<http://www.mhdata.or.kr/>)

통계청이 발간한 2022 한국의 사회동향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8)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정부 주도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앞선 자료를 통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비차별적으로 나타났듯 신자유주의 기조의 상징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진보정당 지지자든 보수정당 지지자든 무당파든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무당파와 보수정당 지지자의 경우 중립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2003년 기준 평균 80%에 육박했던 소득 재분배 정책 찬성 기조가 50%대로 급감한 추세에는 지지 정당간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XI-13] 지지 정당별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 2003-2021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동의'에서부터 '매우 반대'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찬성'은 매우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이고, '중립'은 '동의도 반대도 아님' 응답률이며, '반대'는 '매우 반대'와 '약간 반대'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이 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된 즈음 태어나고 자란 그야말로 탈이데올로기 키즈들에게 최근 촉발된 이념 논쟁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조금 더 싫고 조금 더 나쁜 쪽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논쟁에 참전하는 이들 모두에게 느끼는 피로도는 아마도 유사할 것이다. 도리어 이들을 짓누르는 이념은 끊임없는 경쟁과 생존의 문제, 열패감과 고립이다. 그 뿐인가. 지난 대선의 판도를 갈랐다고 평가 받는 20대 남녀의 대세적 투표의 방향, 그리고 그 기저에 존재하는 페미니즘 이슈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평화를 향해 반드시 함께 이야기해나가야 할 이념이다. 전통적 이데올로기 구분에 가려져 이념이 아닌 듯 가려져 있지만 사실상 더 뿌리깊게 우리의 사상을 좌지우지 하는 이러한 사안들에 관해 개신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공존해야 하는지에 관해 더 깊은 고민과 씨름이 필요하다. 포기할 수 없는 본질과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나가야 할 비본질의 영역을 치열히 고민해가는 일 자체가 이념 논쟁 회귀 시대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8) 하상응(서강대학교), 보고서 내 [그림XI-13] 원본 캡처 후 인용

5. 타성과 이념을 거슬러,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덧붙여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으려면 남들의 눈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소망이 보여야 할 것이므로 말하는 대로 살아내려는 성도와 교회의 몸부림이 필요할 것이다. 세상과 다름에서 오는 거룩함은 외양과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단체로 발행하는 성명서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성도 개개인의 삶의 태도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 비로소 드러날 뿐이다. 정치적 썬모를 다해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학벌, 부동산, 자본을 대하는 성도 개인과 교회의 태도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남달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자기기만 아닐까. 그러므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둔 바로 그 소망’이 성도들의 삶과 개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영성과 사회적 책임을 두루 갖춘 이들이 있어야 개신교회가 발행하는 사회적 메시지에도 힘이 실리고 결과적으로 반향과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입장을 신앙적 진리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교적 정치행위화에 빠질 위험은 비단 보수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혁적 복음주의자와 에큐메니컬 진영에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때때로 쉽고 편안한 선택지로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특정한 정치 그룹과 이념에 매이지 않는다. 악마의 타자화는 쉬운 반면 내 안에 존재하는 타성과 이념을 거슬러 반복해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어렵다. 그 좁은 길을 선택하려는 태도와 자기부인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닐런지. 이념논쟁을 재점화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반성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분의 정의와 하나되게 되심 그리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